

한반도 첫 수도 고창소식

05
2021
제 470호



발행처 고창군 주소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45 전화 063.560.2327
FAX 063.560.2259 홈페이지 <http://www.gochang.go.kr>

고창군에서 매월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로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거나 구독을 원하지 않으시면 연락 주세요. (063.560.2327)
'고창소식' 이젠 스마트폰에서 보세요. (고창군 스마트알리미 어플 무료로 다운)

“우리동네가 달라졌어요”
고창에는 지붕없는 미술관이 있다

‘고창군 공공미술 프로젝트’ 통해 낡고 후미진 공간이 예술가들의 손을 통해 힐링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지난해 여름부터 도예, 회화, 목공, 조각 등 다양한 분야의 8개 작가팀, 지역미술가 42명이 지역주민들과 활발하게 소통하며 함께했습니다. 코로나19로 위기에 처한 지역 예술인들에게 힘이 되고 군민들의 일상 가까이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문화적 명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할매바위(아산면) ‘그린바우’자연조형물



“군민 물력 빛난다” 고창 농수산물 **승차구매(드라이브스루)** 대박행진



주)고창항토배기유통(대표 정남진)이 농가들과 울력해 지역농특산물 승차구매(드라이브스루) 행사를 진행했다. 4월9일 고품질 딸기를 시작으로, 표고버섯, 고춧가루, 방울토마토, 지주식김 등을 판매했다. 고창 승차구매 행사는 지역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지역농가는 “코로나19로 판로가 막히면서 물량이 냉장창고에 많이 쌓여 있는데 이렇게 고창군에서 팔 기회를 만들어준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고 밝혔다. 한 소비자는 “냉장고를 비우고 매주 금요일만 되길 기다렸다”며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농산물을 할인된 가격에 차에 탄 채 구입 할 수 있어서 좋았다”고 활짝 웃었다.

고창항토배기유통 관계자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자랑스런 고창군민들의 위대한 울력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고창군은 모든 혁신적 수단과 창의적 대안으로 재난시대 농산물 유통의 고창형 해법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봄철 힘든 논·밭 대신해 갈아드려요”고창군농작업 대행 서비스 인기

5월말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트랙터 3대 운영..고령·여성·귀농인 대상 호응

고창군농업기술센터의 ‘농작업대행서비스’가 농번기 인력난 극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농작업대행서비스는 농기계조작이 어려운 70세이상 고령농업인과 여성농업인, 귀농 3년 미만의 귀농인등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트랙터를 활용해 밭 정지작업을 지원하고 있다. 신청 대상자가 늘고 있는 추세를 감안, 올해는 트랙터 1대를 추가 확보했다. 현재 70농가 13ha를 신청접수 받아 3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무료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또 10월께 북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가 준공되면 4개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 농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박성기 농기계지원팀장은 “대행서비스를 통해 영농철 일손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_고창군농업기술센터 농기계지원팀(560-8868)



“사람이 제일 귀하다” 고창군 무장기포지에서 되살아나는 '동학혁명정신'

4월25일 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 열어



고창군 공음면 무장기포지와 무장읍성 일원에서 4월25일 ‘동학농민혁명 제127주년 기념행사 및 무장기포기념제’가 열렸다. 고창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와 동학농민혁명무장기포기념제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에는 고창군수, 최인규 고창군의회 군의장과 도의원, 군의원, 기관사회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코로나19상황에 따른 방역수칙이 철저히 준수됐다. 오전 9시 열린 행사는 무장기포지(현 공음면 구암리 구수마을)에서 출정기념식과 포고문 낭독, 헌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황토빛 농민군복에 차림에 각각의 깃발을 들고 무장읍성까지 약 7.2km에 걸친 진격로를 걸었다.

한편, 무장기포(茂長起包)는 1894년 음력 3월20일 전봉준 장군 등이 현재의 고창군 공음면 구수마을에서 혁명의 대의명분을 설명하며 봉기를 선언한 것을 말한다. 동학농민혁명이 지역적인 민란 수준에서 벗어나 전국적인 봉기로 내닫는 시발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방역은 '지금처럼'

다시, 봄

되돌아봐야 할 야외 활동 방역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거리두기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기



흐르는 물에
비누로 자주 손 씻기



환기, 소독 자주하고
공용물품 사용 자제하기



‘빠르고·안전하게’ 고창군, 코로나19 백신접종 속도낸다

75세 이상 어르신 화이자 백신 접종 완료
5~6월 65세~74세 어르신 접종 이어져

고창군에서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월26일부터 5월1일까지 고창군 예방접종센터(고창읍 운동장길 36)에선 75세 이상 1280명의 화이자 백신 예방접종이 완료됐다. 군은 접종을 받는 어르신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읍·면별로 수송차량으로 이동을 지원하고 있다. 예방접종센터에서는 고창군자원봉사종합센터 등 자원봉사자들이 어르신들의 편의를 돕고 있다. 또 같은기간 병·의원, 약국종사자, 사회필수인력(경찰, 해경, 소방, 산림청 산불진화관련자), 투석환자 등 512명이 위탁의료기관 5개소(고창병원, 석정웰파크병원, 고창미래의원, 임국희의원, 십자의원)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예방접종도 무사히 마쳤다. 5~6월에는 65세~74세 어르신(1947년1월1일~1956년12월31일 출생자)들에 대한 백신접종이 이어진다.

고창군은 예방접종과 관련해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콜센터(063-560-8547)도 운영중이다. 접종 전 예약상담, 접종센터와 민간 의료기관 안내, 접종후 이상반응 상담 등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한 모든 것을 콜센터에 문의할 수 있다. 천선미 고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시행추진단장은 “정해진 날짜에 접종 등 집단면역이 조기에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며 “일상으로의 첫걸음이 될 이번 백신 예방 접종 후에도 방역 수칙을 준수해 코로나19 없는 행복한 고창을 만들자”고 말했다.

3

고창군이 코로나19로 지친 군민들을 응원하고,
지역경제 전반이 다시 활력을 회복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 긴급지원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과 함께 :-) 코로나19 극복해요

> 5개분야 농업인 영농지원바우처 지급

대상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 100만원 상당의 선불카드 지원

> 소농직불금(3780명) 수령농가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 양식어가 바우처 지원

대상 민물장어 등 15종의 양식장 중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어가
지원 100만원 상당의 수협 선불카드 지원

> 전세버스기사 소득안정자금(70만원) 지급

> 소상공인 상하수도 요금 60%감면
(지난해 3월부터 코로나19 상황종료 시까지)

고창군수는 “농·어촌현장과 경영일선에서 사력을 다해 애쓰고 계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은 지역 농어민과 소상공인들이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단기대책부터 미래를 내다보는 장기대책까지 다양한 해법을 마련해 가겠다”고 전했다.

군민에게 힘이 되는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회



고창군의회, 2021년 군정 주요현장 방문



4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 등 군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15개소에 대하여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각 과·관·소장으로부터 사업 설명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개선 및 요구사항이 도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발송하여 시정 조치하도록 하였다. 주요사업장 방문 대상지로는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 ▲월곡어린이 생태체험공간 조성사업 ▲고창읍성 체험시설 조성사업 ▲농산물 안전분석실 운영 ▲은퇴자 작업공간 조성 ▲장애인 주간보호·직업재활시설 신축 ▲서월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신림 종돈개량사업소 환경관리계획 ▲공음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사계절 명품해수욕장 조성사업 ▲동호해수욕장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운영 ▲서해안 바람공원 운영관리 ▲일물경과 함께하는 생물권체험학습벨트 조성사업 ▲내죽도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15개소이다. 최인규 의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 및 현안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검토하여 대책 및 대안을 강구하겠다”며, “이후에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년 4월 의원간담회 개최

고창군 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4월 12일 의원간담회를 개최하여 의정 활동 등에 대한 협의를 하였다. 이번 4월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의회 직무연수를 무기한 연기하는 내용과,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성명서 발표 등 각종 안건을 협의하였다. 한편, 고창군의회에서는 매월 1회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비회기 기간에도 연속성 있는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지역현안에 대한 집행기관과의 상시 대화체계를 유지해 준비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인규 의장은 “의원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현안사업 및 주요시책에 대한 사전협의를 통한 발전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280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제280회 임시회를 4월 21일 개최하여 4월 29일까지 9일간의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미란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집행부에서 제출된 각종 의안과, 이경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진남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노을(부창)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등을 포함하여 12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또한 4월 22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전지훈련 트레이닝센터 조성사업' 등 15개소 사업장의 현장 방문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

제280회 임시회 의안심사 결과

소 관 위원회	의안 번호	의 안 명	제출부서	비고
합 계		12건		
자치행정 위원회 (8)	384	고창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원안가결
	385	고창군 추모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386	고창군 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387	고창군 자연장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388	고창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부결
	392	문수산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원안가결
	389	고창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울력행정과	보류
	390	고창군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체육청소년 사업소	원안가결
산업건설 위원회 (4)	382	고창군 경관작물 다목적 체험관 민간위탁 동의안	농생명지원과	원안가결
	376	고창군 고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생경제과	원안가결
	383	고창 복분자·식소산업 특구 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농생명지원과	원안가결 (의견제시)
	391	고창읍가족행복지원센터 신축을 위한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주차장,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	건설도시과	원안가결 (의견제시)



노을(부창)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4월 29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노을(부창)대교 건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진남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건의안은 서해안과 남해안을 연결하는 파주~부산간 국도 77호선의 유일한 단절구간이며, 고창군 해리면과 부안군 변산면을 잇는 7.48km규모의 다리인 노을(부창)대교 건설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고창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20여년 간 기다려온 고창군민의 오랜 염원인 노을대교 건설을 위해 금년에는 반드시「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21년~25년)」에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4월 21일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고향사랑 기부금법(고향세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경신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이와 관련하여 정부에서는 10여년 전부터 기부자가 거주지 외의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답례품으로 지역특산품을 지급하는「고향사랑 기부금제도」도입에 관한 많은 논의를 해왔으며, 현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선정과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포함하였으나, 제도 시행을 위한 법률은 아직까지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고창군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중앙과 지방, 도시와 농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적극 동참하고,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도·농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여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할 수 있도록「고향사랑 기부금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부자의 공감과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세액공제와 지역특산품 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방안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5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 발표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지난 4월 13일,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본 정부가 4월 13일 아침 내각 각료회의를 통해 결정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공식 발표하자, 고창군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6만여 군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결정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단호히 맞설 것을 밝혔다. 고창군의회는 성명서 통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을 즉각 철회, △일본정부는 방사능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오염수 처리 방안을 국제사회와 즉각 협의,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정부의 결정에 대해 실효적인 대책을 즉각 강구, △일본정부의 금번 결정은 전 세계를 향한 핵 테러로 규정하며, 일본이 더이상 지구에 해악을 끼치지 않도록 주변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제재하라”고 말했다.

고창군의회 부동산 투기 근절 성명서 발표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어 군민의 대의기관인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가 의원 일동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부동산 투기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4월 21일 고창군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비롯한 모든 수사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며, 향후 부동산 투기 혐의가 확인되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해당 의원에 대한 강력한 징계 조치로 일벌백계 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인규 의장은 “공정과 청렴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군민의 눈높이가 높아진 만큼 고창군의회 역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조성을 위해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군노인복지관 ‘굿피플’ 봉사단, 밀반찬 자원봉사 진행

고창군노인복지관 어르신으로 구성된 선배시민봉사단 ‘굿피플’ 자원봉사단이 4월8일부터 고창지역 저소득 동년배 어르신을 위한 밀반찬 봉사활동을 시작했다. 사업은 11월까지 진행되며 매주 1회 3찬으로 구성된 밀반찬이 제공된다. 식사 준비가 어려운 독거 또는 거동불편 어르신 12개 가정에 밀반찬을 전달하고 가정방문 시 어르신들의 안전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선배시민봉사단 ‘굿피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지원으로 2015년 3월에 결성돼 올해로 6년째 어르신 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다.



고창군 상하면 자율방범대, 백신 접종 대상자 위한 타이레놀 기부



고창군 상하면 자율방범대가 200만원 상당의 타이레놀을 직접 구매해 코로나 백신 접종 대상자 500여 명에게 기부하기 위해 상하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했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후에는 당장 발열 등이 나타나지 않더라도 타이레놀과 같은 해열제를 준비해 두는 게 좋다고 방역당국이 권유함에 따라 이 같은 기부가 이어졌다. 기부받은 타이레놀은 고창군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진행하는 75세 이상 접종 대상자뿐만 아니라 추후 접종 대상자에게까지 전달될 예정이다.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 나무심기로 생명살림운동 전개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회장 오균호)가 지난 4월6일 ‘51주년 새마을날’을 기념해 나무심기를 추진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고창군 새마을지도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창읍내와 신림면 일원에 사과나무, 감나무 등 유실수 80여그루를 식재했다. 특히 식재된 나무는 군민 누구나 가꾸고, 열매를 따서 먹을 수 있어 공동체 정신을 되살리고 나눔을 상징해 그 뜻을 더했다.

오균호 새마을운동고창군지회장은 “생명살림운동의 작은 실천이 기후 위기와 전면적인 생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석이 돼 더 많은 실천과 참여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50년 전의 타임캡슐 '이재난고(頤齋亂藁)', 고창군으로 돌아왔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일기류 중 최대·최다의 사료, 일기인 듯 일기 아닌 일기 같아 붙인 이름, 난고(亂藁)

조선 후기 실학자 이재 황윤석(1729~1791)이 평생에 걸쳐 보고 들은 모든 지식을 기록한 백과전서 '이재난고' 일부가 황윤석의 고향인 고창군으로 돌아왔다. 4월30일 이재 황윤석의 8대 종손인 황병무씨가 '이재난고'와 '이재유고 목판' 100점을 고창군에 기탁·기증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재난고(頤齋亂藁)'는 대실학자 이재(頤齋) 황윤석이 열 살 때부터 세상을 뜨기 이틀 전까지 53년 동안 온갖 다양한 정보들을 상세히 기록한 일기다. '이재난고'에는 양반 지식인이 살아온 궤적이 매우 상세하게 담겨 있다. 심지어 당시 쌀값이나 국밥이며 고기 따위의 물가 변동까지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다. 이에 더해 고창과 인근에 대한 정보는 대단히 많은데 난고에는 당시의 생활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당시 고창(흥덕)에서 서울까지 6박 7일 정도로 다녔던 노정(路程: 580리)과 여행일지, 경승지나 유적지 등을 돌아본 내용도 있다. 고창군은 향후 '이재난고'의 국가지정문화재인 '보물' 승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립중앙과학관)의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로 등록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귀중한 문화유산 기증에 감사드립니다

이재 황윤석의 8대 종손인 황병무 명예교수(국방대학교)는 그간 문중에서 소장했던 '이재난고'와 국립전주박물관에 기탁 보관했던 '이재유고 목판' 100점을 고창군에 기탁·기증해 체계적으로 관리·연구하고, 많은 사람이 그 역사적 가치와 사상 등을 알 수 있길 바랐다. 특히 황 명예교수는 오래 전부터 '이재난고' 번역작업 등 이재선생의 학술과 사상에 대한 연구를 위해 사재 2억원 선뜻 내놓으며 '이재연구소' 설립을 도왔고, 올해도 전봉준 장군 동상 건립을 위해 100만원을 고창군에 기탁하기도 했다.



선운산도립공원, '시냇물길'과 '경관폭포'로 사계절 관광지로 거듭난다

고창군 최대 관광지인 선운산도립공원 생태숲 일원에 400m의 시냇물길이 탄생했다. 바로 옆 선운천에서 깨끗한 계곡물(1급수)을 유입해 시냇물길로 흘려보낸 뒤 다시 선운천으로 합류시키는 친환경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냇물길 중간에는 물놀이와 족욕을 즐길 수 있어, 가족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또 오는 8월에는 경관폭포도 선보인다. 40m높이의 자연 암석에서 떨어지는 시원한 물줄기는 관광객들의 여름철 무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운산 국민여가캠핑장도 새롭게 단장하고 올 하반기 본격운영을 위한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텐트 사이트 31면, 자가카라반 사이트 8면, 글램핑 사이트 6면과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취사장, 주차장, 음수대 등의 편의시설을 갖췄다.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현재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중이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 후원 캠페인

나눔을
스캔하세요!



1% 나눔으로 100%의 희망을 전하세요.
나눔보다 더 큰 사랑은 없습니다.
나눔으로 행복하고 나눔으로 세상은 더욱 빛이 납니다.
고창군장애인복지관 후원 캠페인에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 주세요.

*후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 소득세법 34조에 의해 연말정산 비용 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63)562-3777 후원담당자

세계유산과
운도가 함께하는
고인돌
야행

연제	2021년 5월~9월 중 (토요일/7회)
	5월 22일(토) 8월 7일(토)
	6월 19일(토) 8월 21일(토)
	7월 10일(토) 9월 18일(토)
	7월 24일(토)
장소	고창 고인돌박물관 앞, 고인돌 유적지 일원 (야외, 선사체험관, 일원)
참가방법	운도와 함께하는 별자리 관찰, 생태여행 프로그램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30명) (체험예약문의 : 010-7273-9017 / 참가비 무료)
소요시간	고인돌 버스킹 : 40분 / 생태여행 : 50분 별자리관찰 : 60분

프로그램

6:00 세계유산 고인돌 버스킹
7:00 해설사와 함께하는 생태여행
7:50 고인돌 유적의 풀꽃 향기
8:30 운도와 나침반, 다우징 체험
탄생석 별자리 꾸미기
9:00 고인돌 청사초롱 밤마실
9:30 별자리 관찰과 마무리



“고창군이 보증하는 최고의 맛과 품질” noblegochang 5월의 업체소개



대표 안상희

상희팜 푸드 (복분자 원액)

“첫 마음을 잃지 않는, 원리원칙을 지키는 오랜 고집. 우리가족이 먹는다는 마음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친환경 농법으로 정성을 다해 재배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재료와 믿을 수 있는 HACCP인증 시설에서 안전하고 청결하게 만들었습니다”

황토구운소금 (구운소금)

“3대를 잇는 장인이 만든 명품소금. 국내산 5월 천일염으로 2년간 간수를 제거한 뒤, 직접 만든 황토그릇에 넣고 800도 고온으로 구워내 덜짜고, 순하며, 담백하고, 쓴맛이 없는 맛있는 소금입니다”



대표 유준봉

자연숨결그대로

(현미식초, 흑보리식초, 복분자식초)



대표 조준영

“자연에서 향아리를 이용해 일반적인 누룩대신 고문헌에 나오는 고리를 사용해 맛과 향이 깊고 진하며 기능성에서도 탁월한 정직한 발효식초를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인위적으로 온도와 습도를 맞추는 발효기 대신, 전통 옹기를 사용합니다. 자연에 두어 자연의 숨결을 그대로 담아내 향과 맛이 진하고 깊습니다”

선운산 품천장어 (품천장어)

“직접 매장을 운영(어머니와 아들 2대가 머리를 맞대고 가게 운영)하고 있어 주문 즉시 바로 손질하기 때문에 더욱 신선하고 품질 좋은 장어를 드실 수 있습니다. 장어뼈와 몸에 좋은 각종 한약재를 12시간 푹 달이고 고추장, 고춧가루 등으로 만든 비법소스에 찍어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대표 정건,윤수영

고창농부의아침 (새싹인삼)



대표 김성자

“새싹인삼은 뿌리는 물론 잎과 줄기까지 통째로 먹을 수 있는 신개념 웰빙쌈채입니다. 약성이 좋다는 6년근 인삼 뿌리보다 8~10배나 많은 사포닌을 잎에 함유해 기능성 채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들을 주변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황토더덕 창수네장생 홍도라지즙



대표 김창수

“7년근 홍도라지와 6년근 더덕의 최고의 배합비율을 찾아내 약성이 가장 좋은 진액을 만들어냈습니다. 보름간의 구증구포를 통해 몸에 탁한 성분은 없애고, 좋은 성분은 더 끌어냅니다. 또 72시간 80도의 온도에서 다리고, 다시 45일간 저온숙성 과정을 거쳐야 명품 홍도라지 진액이 탄생합니다”

고창군 통합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물' 인기몰이



고창군 농특산물 온라인쇼핑몰 '높을고창물'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다양한 품목과 저렴한 가격은 물론, 지자체가 직접 품질을 보증하면서 코로나 19 시대 농산물 유통의 새바람이 불고 있다. 현재 높을고창물에선 70여개 업체가 입점해 150여 품목을 판매하고 있다. 지난 4월20일 오픈기념식에선 업체들이 ▲건강하고 바른 상품의 생산과 소비자의 건강한 먹거리 기본권 보장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한 최상의 상품 제공 ▲고객 만족을 넘어 고객 행복 실현을 실현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식도 진행됐다.

높을고창물 <https://www.noblegochang.com/>
콜센터_1577-5827



고창군홍보대사 가수 진성, “노을대교 건설에 함께 힘모아주세요”



노을대교 조기 건설에 대한 고창군민들의 염원이 커지는 가운데 고창군 홍보대사인 가수 진성도 힘을 보탰다. '트로트계 BTS' 가수 진성이 새봄을 맞아 고창군에 영상메세지를 보내왔다. 진성은 “새봄을 맞아 고창군에 좋은 소식이 들리는 것 같다”며 고창과 부안을 잇는 노을대교 건설에 대한 희망을 전했다. 실제 고창은 진성씨가 유년시절을 보낸 곳이고, 부안은 출생지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서 진성은 “노을대교가 반드시 건설될 수 있도록 고창군 홍보대사로 최선을 다해 홍보하고 노력하겠다”며 “고창군민들도 노을대교 착공을 위해 힘을 보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진성의 노을대교 홍보영상은 고창군 공식유튜브 채널 (<https://youtu.be/1zvhGY7K4vY>)에서 볼 수 있다. 한편, '고창·부안 노을대교군민추진단'은 최근 양 지역군민 3만여명의 자필서명이 담긴 '고창-부안 노을대교 조기착공 서명부'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9

“아빠·엄마 나라말 모두 잘해요”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중언어 특별지원 프로그램

고창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다문화자녀들이 아빠, 엄마나라 언어를 모두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사업은 마음을 열어주는 '부모 교육', 아이와 함께하는 '상호작용 놀이수업', 서로 도우며 배우는 '자조모임'으로 두 개 언어를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의 장점을 자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다문화자녀들이 두 개 국가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일은 가족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문화이해는 물론, 이웃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시킬 것이다. 현재 센터의 '이중언어코치' 왕제 선생님은 한국어능력(토픽) 6급과 이중언어 강사 활동 경력을 보유한 다재다능한 인재로 다문화자녀들이 더 넓은 세상과 희망찬 미래를 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원하고 있다. 두 개의 언어는 두 배의 가능성이 될 수 있다. 그 가능성을 위해 고창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문의 ☎063-561-1366,

홈페이지 <https://gochang.familynet.or.kr>

변영주 감독 “국내유일 고창농촌영화제 성공개최 힘껏 도울 것”



영화 ‘낮은목소리’, ‘발레교습소’, ‘화차’ 등을 연출한 변영주 감독이 고창농촌영화제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며 홍보 지원을 약속했다. 제4회고창농촌영화제 사무국에 따르면 최근 천선미 고창군부군수 등 영화제 관계자와 변영주 감독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변 감독은 “산, 들, 강, 바다, 갯벌이 모두 있는 고창은 우리나라에서 몇안되는 농·산·어촌의 정겨운 풍경을 모두 담을 수 있는 곳이다”며 “평소 팝콘과 콜라 대신 고구마·옥수수과 식혜·수정과가 함께하는 매력 넘치는 고창농촌영화제를 관심있게 보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변 감독은 “특히 고창농촌영화제는 영화학도는 물론, 지역주민들에게 현직 영화강사와 함께하는 단편영화 제작과 영화제 실무과정을 교육하기도 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며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는데 고창농촌영화제가 이들에게 위로와 치유, 공감을 전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올해 4회째를 맞은 고창농촌영화제는 10월29일부터 사흘간 고창군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다양한 농촌관련 영화 상영과 함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보다 안전하게 관람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박균성 특화작물팀장, ‘세계기상의날’ 환경부장관상

10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박균성 특화작물팀장이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박균성 팀장은 고창군 복분자 재배 농가에 지역기상융합서비스 활용을 적극 지원해 농업인 소득향상과 농업기상 정보 활용의 유익성을 높여 기후산업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내실있는 사업서비스 추진을 위해 농민 의견 수렴과 간담회, 협력 회의 등을 진행하며 개선방안 제안과 토론을 통한 지역기상융합서비스 확산과 활성화에 도움을 줬다.

고창군농업기술센터 박균성 팀장은 “앞으로도 기상자료를 충분히 활용해 고창군 복분자의 고사율을 줄이고 생산량 증대와 품질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어업인 숙원사업’ 고창군 어업지도사무소 구시포항에 개소



고창군 어업지도사무소가 구시포항에 신청사를 짓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사무소는 총사업비 7억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1040㎡의 부지에 사무실, 어업인 회의실, 비품 창고 등을 갖췄다. 구시포항은 관내 어선 약 100여척이 정박해 있고, 고창군 소속 15톤 어업지도선과 3.5톤의 고속단정이 계류하고 있다. 특히 어선 사고와 비상 상황 대응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구시포항 내 어업지도사무소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어업지도사무소 신축으로 사무소 내 어업인 소통 공간 조성 및 불법어업 관련 문의 등 다양한 어업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라남근 과장은 “어업지도사무소 준공으로 어업인의 안전조업 지도 및 해난 구조 등 해상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월-고창의 인물 정백현(鄭伯賢)



위치 : 전북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 상예마을 221-1

본명은 근영(根永1869~1920)이며, 호는 진암(眞菴) 또는 약봉(藥峰)이다. 1869년(고종 6년) 10월23일 고창군 공음면 예전리에서 태어났다. 1893년 12월10일 무장현 당산리에서 동학의 대접주 손화중과 김성칠, 정백현, 송문수 등 4인이 전봉준과 만났다. 이듬해 3월 동학농민혁명 때 전봉준 장군의 아내와 먼 친척인 송희옥(뒷날 전주대도소 도집강)과 함께 전봉준의 비서가 됐다. 정백현은 동학농민운동과정에서 격문, 행동규약, 폐정개혁안(弊政改革案) 등을 작성해 혁명군 진영은 물론 전국에 띄운 문필가다. 전봉준은 간혹 자신이 직접쓰기도 했지만 대서한 경우도 많았는데 그 일 역시 정백현이 도맡아 했다. 정백현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에 대한 사료는 거의 없다. 정백현은 동학농민혁명이후 몸을 피해 신촌마을로 피신했다가 서울로 이주, 1903년경 고향으로 돌아온 뒤 1920년 세상을 떠났다.

글/ 진윤식(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 이사장)

고창군 일자리 지원 센터

더 좋은 일자리, 더 많은 일자리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연번	업체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연경전자	2	금형원 (경력/신입)	월급 200~300만원 주5일근무/08:00~17:00	채용시	고창읍
2	대풍농자재마트	2	매장정리원 및 배달원	월급 270만원 주6일근무/07:00~18:00 (수습3개월)	6.22	고창읍
3	대부관광여행사	1	여행사무원	월급 200만원 주5일근무/09:00~18:00 (문서작성, PPT등)	채용시	고창읍
4	(주)라온푸드 시스템	1	생산직사원	시급 8,720원 주5일근무/일~목/9:00~18:00 교통비5만원 지급	채용시	부안면
5	엄지식품	30	생산직사원	시급 8,720원 주5일근무/08:30~18:00 (6월말사업개시예정)	채용시	부안면
6	대림환경	1	경리사무원	월급/면접후 결정 주6일근무/08:30~18:00 (토요일격주근무)	채용시	신림면
7	대경스틸주식회사	1	경리사무원 용접원	월급/회사내규에 의함 주6일근무/08:00~18:00 (토요일격주근무)	채용시	흥덕면
8	아이보리영농 조합법인	1	단순근로 종사원	시급 8,720원 주5일근무/08:00~17:00	채용시	성내면
9	농업회사법인 고은(유)	1	제조생산 및 영업	월급 250만원 (상여금 지급) 주5일근무/09:00~18:00	채용시	아산면

구인, 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_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063-560-2366)

사서추천, 이달의 도서



[평화인물전]
우리는 이미 평화의 길 위에 서 있다



김재신 / 기억 / 2020
군립도서관 063-560-8051
성호도서관 063-561-2421

우리 지역 출판사 기억에서 펴낸 이 책은 위인전, 역사서, 철학서라고 할 수 있다. 비폭력 운동의 대표 마틴루터 킹과 폭력저항운동을 용인했던 말콤엑스의 삶 그리고 타고르, 간디, 넬슨 만델라등 어려운 시대에 평화를 위해 몸바쳤던 여러 인물의 삶을 통해, 남아프리카 진실화해위원회의 화해와 용서를 통해 평화에 대해 생각하게 하는 책이다. 위인들이 겪었던 시대의 아픔을 이해하고 우리 안의 작은 평화의 씨앗을 자라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고창군 전봉준 생가터’ 등 고창지역 문화유산 4건, 전북도 문화재 지정

‘고창 전봉준 생가터’, ‘고창 석탄정’, ‘고창 삼호정’, ‘고창 선운사 영산전’ 총 4건 지정



선운사 영산전



석탄정



삼호정



전봉준 생가터

조후동, 석호 조석동)의 호(湖)를 따서 1700년대에 지었고, 1864년에 중건한 정자.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며 시를 쓰고 글을 읽으며 지냈던 당시의 유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 ▲전봉준 생가터=한국 역사상 최대의 혁명적 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도모하고 이끈 최고 지도자가 태어나고 유년기를 보낸 상징적인 장소. 이밖에 현재 ‘고창 무장기포지’, ‘고창 문수사 대웅전’, ‘고창오거리당산제’, ‘고창농악’의 국가지정문화재 승격과 ‘고창 상금리 고인돌군’에 대한 도기념물 지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전라북도문화재위원회가 지난 4월9일 ‘고창 선운사 영산전(도유형 제277호)’, ‘고창 석탄정(도유형 제278호)’, ‘고창 삼호정(도유형 제279호)’, ‘고창 전봉준 생가터(도기념물 제146호)’가 전라북도지정문화재인 유형문화재과 기념물로 각각 지정됐다.

▲선운사 영산전=대웅전, 만세루와 함께 선운사를 대표하는 불전. 건물내 목조삼존불상(도유형문화재 제28호), 16나한상, 벽면에는 1821년 재건 당시의 벽화가 그려져 미술사적인 가치 높아. ▲석탄정=1581년 석탄(石灘) 류운(柳漣)이 낙향 후 학문 강론을 위해 건립한 정자(1830년 중건). 넓은 평야에 동산처럼 솟아있는 임반지대에 운치 있게 나무와 정자를 세워 유유자적하며 풍류와 학문을 즐기던 공간. ▲삼호정=옥천조씨 삼형제(인호 조현동, 덕호 조현동, 석호 조석동)의 호(湖)를 따서 1700년대에 지었고, 1864년에 중건한 정자. 형제간의 우애를 다지며 시를 쓰고 글을 읽으며 지냈던 당시의 유교문화를 엿볼 수 있는 장소.

KTX매거진 5월호에 소개된 한반도첫수도 고창밥상



“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전북 고창에서 자란
농산물과 수산물이라 믿음이 간다.
그 자원으로 정갈한 밥상을 차리는
음식점 열다섯 곳을 모았다 ”

코레일(한국철도공사)가 매월 10만부 이상 발행하는 여행문화전문잡지 ‘KTX매거진’ 5월호에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 15곳과 높을고창 브랜드 품목(쌀, 멜론, 수박, 지주식김, 딸기)이 소개됐다. KTX매거진은 KTX 뿐만 아니라 ITX-새마을, ITX-청춘 전 좌석에 고정 비치돼 전국의 여행지와 맛집을 소개하고 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밥상은 ▲박가네한우사랑 ▲연화식당 ▲가마솥곰탕 ▲성송회관 ▲모양성순두부 ▲석정풍천장어 ▲다은회관 ▲모꼬지함초바지락 ▲인천가든 ▲우리풍천장어 ▲본가 ▲모양성숯불갈비 ▲텃밭쌈밥월빙식당 ▲싸릿골 ▲혜성매일이 참여하고 있다.